

# 한지<sub>를</sub> 이용한 가방 제작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예디자인학과

김영현

2016

## 목차

### 서론

1. 연구배경
  - 1) 한국적인 공예
  - 2) 가방작업의 계기와 목적
2. 연구목적과 방법

### 본론

1. 한지
  - 1) 종류
  - 2) 기법
2. 주름기법의 적용
  - 1) 주름기법이란
3. 연구 작업
  - 1) 제작과정
  - 2) 결과물

### 결론

## 서론

### 1.연구배경

#### 1)한국적인 공예

한창 페이스북에서 외국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공유되었던 영상이 있다.

바로 한국의 장인들이 '갓'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그 영상에 열광했던 것일까?

바로 '한국적'인 공예와 그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적'인 디자인, 공예는 과연 무엇일까?

항상 다양한 전시회와 공모전에서 사람들이 항상 원하는 것은 '한국적'인 작품, 상품, 디자인이다.

하지만 그토록 쉽게 말하는 그 '한국적'이란 말이 제대로 '잘' 표현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인사동 길거리에서 관광 상품으로 판매 되고 있는 상품들은 정말로 '한국적'인 것일까? 촌스러운 빛깔, 어설픈 누빔과 매듭들 역지사러운 무늬, 이상한 인형들, 기괴한 형상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작가로써, 작은 사명감이 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국적인 작업을 해보자.

그런 마음을 늘 가슴 한 곳에 새겨두었던 어느 날 한지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이탈리아에서 한지를 고서복원용 종이로써 일본의 화지 보다 높게 평가되어 사용되면서 한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공예문화진흥원에서도 한지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새로이 개발되어지는 한지에 대한 정보도 있었다.

한지를 다뤄보았던 것은 고작해야, 초등학교 미술시간에 한지 색종이를 다뤘던 것이 고작이었지만, 기존에도 종이접기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을 진행해 왔던 터라 한지를 작업의 재료로써 다뤄보기로 하였다.

#### 2)가방작업의 계기와 목적

시작은 가죽이었다. 작은 선물을 만들기 위해 시작하였던 가죽 작업이었다.

금속을 다루며 작업할 때 차갑고 날카로운 성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리감이 있는 재료라고 느껴졌다. 하지만 가죽은 달랐다. 부드럽고 따뜻한 재료는 사람들에게 늘 가까이 있고 사용됨으로써 점점 사용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 형태를 바꿔나갔다. 내가 생각하는 '소통'하는 공예로써 완벽한 재료라고 생각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방은 특히 그 사람의 아주 내밀한 공간을 말해주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였다.

잡지화보나 기사내용 중에도 심심치 않게 그 사람의 가방 안의 내용물들을 쪽 펼쳐 놓은 화보나 인터뷰를 볼 수 있다. 취향, 성향 그런 것들이 한 곳에 모이는 아주 개인적인 공간.

그런 공간을 사용자와 소통하면서 만들어 내고 싶었다.

## 2. 연구 목적과 방법

한지연구를 위해 한지를 먼저 제작해보고 용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한지들을 한지기법과 기존에 가족을 다루던 방법을 적용시켜 다뤄보았다.

가방이기 때문에 내구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제작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해보았다.

## 본론

### 1.한지

한지는 문방사우라 불린 만큼 우리민족과 가장 가깝게 지내온 귀한존재로서 우리민족 생활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여 오늘날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며 세계 속에 한지의 우수성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이인 ‘한지’는 예로부터 주변국가에까지 널리 알려졌으며, 특히 ‘닥’을 주원료로 하여 만들었기에 순 우리말로 ‘닥종이’라고도 불렸다. 이러한 한지가 우리나라에 서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기원전 2세기 중국 문경제년간(179-141 B.C) 무렵에 제작된 방마탄에서 출토 된 종이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종이이며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서도 종이생산 기술이 전해졌으리라 추측된다. 이후 서기 105년 중국 후한 때 채륜이 종이를 개량한 시기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나뭇대로의 창조적인 기술개량을 통해 종이생산에 힘써왔으며, 신라시대에 이미 중국에 희고 곱게 다듬은 종이가 수출되었으며 고려시대에 들어 수공업의 전문화와 인쇄술, 제지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질 좋은 종이를 수출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걸러 뜨는 방식과 달리 외발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뜨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희고 광택이 있으며 질긴 종이를 생산, 수출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에까지 널리 우리나라의 종이인 알려졌다.

한지는 예로부터 시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고, 색깔이나 크기, 생산지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구분은 재료, 만드는 방법, 쓰임새, 크기에 따라 나누어졌으며, 이에 따른 종이의 종류는 대략 200여종에 이르렀다.

이처럼 다양하게 생산된 종이는 주로 그림과 글씨를 쓰기 위한 용도로 가장 많이 소비되었고 일반 민중 속에서는 다양한 공예 기법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용도의 생활용품과 장식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예술로도 활용되었다.

#### 1) 종류

한지는 재료/염색법/용도/크기에 따라 구분된다.

원료에 따라서 귀리짚을 원료로 만든 종이를 고정지라고 하며, 뽕나무 껍질을 원료로 만든 종이를 상지, 등나무를 원료로 만든 종이를 등지, 소나무의 속껍질을 혼합하여 만든 종이를 송피지, 물이끼를 섞어서 만든 종이를 태지라고 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종이와 있다.

염색에 따라서는 잇꽃으로 염색한 도와지. 자로 염색한 황국지, 화나무 꽃으로 염색한 초록지 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색을 내는데 검정색을 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쓰임새에 따라서는 장지로 만든 두껍고 품질이 좋은 편지지인 간지, 도배용으로 사용되는 도배지, 부채나 연을 만들 때 사용되는 선지, 온돌바닥에 바르는 기름종이인 장판지외에도 다양한 종이 있다.

## 2) 기법

### 지승공예(紙繩工藝)

지승공예는 ‘노역개’라고 하는데 이는 종이를 끈으로 만들어 끈을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엮어 작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승(紙繩)의 지(紙)는 종이를, 승(繩)은 ‘노’라는 글자이며, ‘노’라는 말의 뜻은 섭, 칩깍질(청을지), 마(麻)(삼), 종이 등을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서 만든 끈 끈을 말하며, 노역개의 ‘역개’는 이 끈을 엮어 작품을 만들어 나간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종이가 흔치 않았던 예전에 글씨 연습을 하고 버리게 된 종이를 모아 두었다가 창호를 바르는데 사용하거나 버리게 된 휴지를 모아 지승 기법으로 생활 용품을 만드는데 이용하였다. 지승공예 기법으로 만든 생활용품에는 가는 노끈을 엮어 만든 그릇으로 물건을 담아 들고 나르는데 쓰인 지승 망태기, 지승으로 짜서 만든 것 속에 나무통을 넣고 안팎을 겹으로 지승으로 짜서 만든 지승 필통, 바구니, 망태, 상, 요강, 옷 등의 그릇을 만들어 옷칠을 입혀 사용하였다.

### 지호공예(紙糊工藝)

지호공예는 종이(닥종이)를 잘게 찢어서 물에 불려 찹쌀풀과 섞어 반죽한 다음, 찢어 이겨서 그릇모양의 틀에 조금씩 붙여가며 말리고 또 덧붙여 마지막에 골격을 떼 내고 옷칠을 하여 마무리하거나, 또는 그림이나 색을 칠하여 마무리 한다. 창호지로 쓰다 버린 폐지나 글씨 연습이나 학습용 휴지, 파지 등을 가지고 물에 풀어 녹인 다음 말판을 섞어 절구에 곱게 찢어서 점토처럼 만들고 이것을 이겨 붙여서 그릇을 만드는 기법이다. 이때 들기름이나 콩기름을 먹여서 충해를 막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림 다음 그 바탕에 색지를 바르고 무늬를 장식하여 호화롭게 꾸미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개는 그릇이 귀한 농가에서 합, 함지, 표주박 등을 만들 때 주고 이용하였고 종이 탈 등도 흔히 지호 기법으로 많이 만들었다. 지호공예 기법으로 만든 공예품에는 종이를 삶아 짓찧어서 만든 독으로 산간 지방에서 마을 곡식을 갈무리할 때에 많이 쓰이는 것이 있고, 물을 떠먹는 데 쓰는 그릇으로 조롱박이나 둥근 박을 반으로 쪼개어 놓은 모양의 작은 바가지인 유지 표주박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반질고리, 과반, 함지박, 둥고리 등을 만들어 썼으며 요즘에는 종이인형 등을 만들기도 한다.

### 전지공예(剪紙工藝)

전지(剪紙)공예는 한지를 여러 겹 덧발라 만든 틀에 다양한 색지로 옷을 입힌 다음 여러 가지 무늬를 오려 붙이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문화의 하나이다. 전지공예는 가위나 조각칼을 사용하여 한지를 오려 붙여 완성한 공예를 말한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문양을 한지에 그린 후 문양의 선을 따라 가위나 조각칼로 오리고, 골격 바탕 면을 한지로 초배한 후 작품의 성격에 맞게 오색지로 나누어 붙여, 오려진 문양을 붙이고 마감 칠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전지 공예는 오색 전지 공예와 양각 전지 공예가 대표적이다. 작품으로는 색실 상자, 색실첩1), 혼례에 쓰이는 예물함, 예단함, 족두리, 반진고리, 동고리 등 여성 용품이 많으며, 다양한 상자류와 머릿장, 애기장, 버선장, 이층장, 삼층장, 의걸이장 등의 대작들을 들 수 있다. 1) 첩 : 한지를 접어 만들어 실이나 형겅조각을 담는데 사용하였고, 겉으로 보기는 보통의 책과 같고 펼치면 색지로 칸막이를 만들었다. 책 같이 두껍게 배접하여, 딱딱한 질감에 끈자 문양을 장식하거나, 花紋을 그려 휴대용으로 여러 단을 접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겉지의 겉면은 비단천, 색지로 바르기도 한다.

#### 지화공예(紙花工藝)

한지를 여러 겹 겹쳐서 일정하게 잘라 꽃을 만드는 것으로 어사와, 꽃상여, 민속놀이, 궁내의 행사 때나 불교문화, 무속 등에 많이 쓰였으며, 약 20여년전 까지도 상여에 많은 종류의 지화를 치장하였으며, 지금도 큰 굿을 할 때는 지화가 쓰인다.

#### 지장공예(紙裝工藝)

지장공예는 나무로 골격을 짜거나 대나무, 고리 등으로 뼈대를 만들어 안팎으로 종이를 여러 겹 발라 만든다. 종이만 발라 공물이나 감물, 옷칠 등으로 마감하기도 하고, 그 위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 마무리 하기도 하였다. 작품에는 지장, 함, 서류함, 화살 통, 안경집, 동고리, 지독, 갈모 이외에 많은 유물이 있다.

#### 지화공예(紙畫工藝)

한지에 천연 염료로 색색으로 물들여 합지, 오동나무, 미송 등으로 만든 골격에 창호지로 초배지를 한 후, 색지를 바르고 먹물이나 당채, 담채, 물감 등으로 일정한 골격위에 문양을 그려 넣은 것으로 민화나 당초문을 주로 그린 것을 말한다.

#### 후지 기법

후지 기법은 종이를 여러 겹 붙여 두껍게 만드는 방법이다. 두껍게 만든 종이를 여러 번 접어 갖가지 형태의 기물을 만드는데 표면에는 요철로 무늬를 넣기도 했다. 칠을 하여 튼튼하게 만든 공예품은 가죽과 같은 질감을 나타낼 수 있다. 작품에는 종이지갑, 물병 등이 있다.

#### 쭈치 공예

쭈치 공예는 일반한지와 달리 전체 종이 면이 요철처럼 기포가 거의 일정하여 오돌도푹한 면을 가지고 있다. 다른 종류에 비하여 대단히 적은 수의 유물이 남아 있으며 싹지, 귀주머니, 지갑, 서류첩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종이옷과 지갑 류를 만드는 경우에 질감을 견고히 하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

#### 색지공예

색지공예는 한지를 여러 겹 덧발라 만든 틀에 다양한 색지로 옷을 입힌 다음 여러 가지 무늬를 오려 붙여 만들며, 한지를 전통 염료로 염색한 색지를 사용한다. 주로 청(靑), 적(赤), 백(白), 흑(黑), 황(黃)의 오색이 기본이다. 색실상자, 오색실을 보관하는 용기인 색실 첩, 예물 함, 예단함, 족두리, 반진고리 등의 유물이 있다.

## 2. 주름기법

주름기법은 주로 의상 쪽에서 원단 가공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기법으로, 일본의 이세이미야케의 옷과 가방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주름기법은 손으로 제작하는 것과 기계로 제작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뉜다.

손으로 주름을 제작할 때는 사람의 손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두 장의 형지를 이용하여 그사이에 천을 끼우고 그 틀의 형태대로 접은 다음 고정시켜 압력과 고열의 증기를 주어 형태를 제작하는 방법과, 손으로 자유롭고 세밀한 주름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작된다.

기계를 사용한 주름은 전용 기계를 사용하여 원판 그대로 주름을 잡을 수 있는 가공법으로 비교적 얇은 두 장의 종이에 천을 끼우고 160℃ 정도

의 두 개의 열 로라 사이에 천을 많이 공급하여 평행 주름을 돌려 접는 방법으로 그 후에 증기를 가해 주면 거의 반영구적인 주름을 만든다.

## 3. 연구 작업

### 1) 제작과정

한지 중에 주로 이용한 종이는 장판지, 장지, 화선지 3가지로 기법으로는 줌치 기법, 후지기법과 주름기법을 한지에 적용하였다. 한지의 여러 가지 특성 중 잘렸을 때 생기는 솜털같은단면과 색지를 부분적으로 탈색하는 것, 그리고 주름이 접혀졌을 때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한지도 결국은 '종이'이므로 많은 힘이 가해졌을 때는 찢어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겹의 한지를 덧대고, 중간에 실험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타이벡이라는 미국 듀폰사가 개발한 합성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섬유를 중간에 덧대어 서로 다른 면과 면이 만나거나, 주름을 만들 때 내구성을 보완하였다.

주름기법을 한지에 적용할 때 한지->타이벡->장지 순으로 배치하여 기계 혹은 손으로 접는 선을 재봉하여 내구성을 보완하고, 재봉 선을 따라 한지를 접어서 주름을 표현하고 마감재를 바르고 추가적인 재봉 선으로 인해 내구성이 약해질 것을 고려하여 한 줄의 재봉 선으로 각각의 도면을 재봉한다. (아래/ 한지의 단면)



2) 결과물



왼)선2, 선1 / 오)선2 측면사진 / 아래) 주름0







선0과 착용한 모습

## 결론

한지를 이용하여 가죽으로는 표현하지 않았던 또 다른 형태를 시도하게 되었던 점이 흥미로웠다. 그러나 한지도 결국 종이이고 모형재료로 주로 사용되다보니, 완성되었을 때 모형의 느낌을 주었는데, 완성도를 높이고, 내구성을 주기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처음 작업을 했던 계기가 되었던 한국적인 재료를 이용한 한국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각종 문헌과 자료들을 부단히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